

안경 디자인의 시대적 변천⁺

이 경 희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교수

Design Transition of Eyeglasses

Lee Kyunghee

Professor, Dept. of Materials Desig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eyeglasses and design transition in materials and types through literature survey. The scope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15th century, for this study survey reaches from the 15th century to moder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Real magnifying glasses was first mentioned by the Arab physicist al-Hazen who was famous of his treatise on optics. The oldest documents which explicitly refer to the art of making lenses for eyeglasses and magnifying glasses were the Venetian artisans of 1300. In the 15th century someone thought to remedy the unstability of glasses by securing the bridge on the forehead. But it was only in the 17th century that someone contrived to stabilize the frame by strapping it on the face by means of fine cords that reached behind the ears. Eventually in the early years of the 18th century the English optician Edward Scarlett invented the rigid earpieces which solved once and for all the problem of holding the eyeglasses firmly in place. In the 19th century, eyeglasses' fashion were monocle and pince-nez. In the 20th century, various lenses and frames were appeared. Therefore eyeglasses to correct defective sight, sun-glasses, as well as a most succesful item among modern fashion accessories.

Key words : eyeglasses(안경), design(디자인), transition(변천), materials(재질), types(형태)

⁺ 이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hee, Tel. +82-54-478-7713, Fax. +82-54-478-7710
E-mail: k.lee@kumoh.ac.kr

I. 서론

안경은 본래, 시력과 눈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되었으나, 현대에는 중요한 패션 아이템의 하나가 되어 매 시즌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고대에도 문자를 확대하기 위한 렌즈가 고안되었고, 태양열을 모으기 위한 볼록렌즈가 사용되었다. 현대의 안경과 같은 시력보강과 보호를 위한 안경의 발명은 13세기의 유럽이었다. 중세가 되어 현대 안경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이후, 시대가 지남에 따라 안경의 렌즈와 프레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실용성 일면이었던 안경은 18세기 이후, 장식성이 더해진다. 20세기에 들어오자 안경은 패션상품의 중요한 아이템의 하나가 되는데, 패션으로서의 안경이 가장 화려한 변화를 보였던 것은 1960년대이다. 이후, 안경은 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의 하나로서 재질과 디자인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현재에 이르렀다.

기이한 것은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 안경산업이 점차 중요시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안경을 주제로 한 문헌과 연구논문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세기 초 까지도 안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도 연구 부진의 한 이유가 될 것 같다. 즉,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약점인데 안경을 착용하므로 약시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미용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으므로, 특히 여성들이 안경 착용을 극구 꺼리는 이유와 연계되는 것 같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안경은 이미지 연출이나, 스타일 완성에 필요한 패션 액세서리가 되면서 중요한 패션산업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연구가 진전되지 못했던 안경을 주제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안경의 기원과 발전 및 디자인의 변천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시대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안경제작 자조합이 결성될 정도로 안경이 보급되는 15세기를 기준으로, 15세기 이전과 15세기 이후의 현대까지를

세기별로 구분하여 안경의 발전모습과 재질과 형태라는 디자인의 양면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20세기는 안경의 발전과 디자인의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이므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II. 15세기 이전의 안경

현존하는 최고의 렌즈는 고대 앗시리아 니느웨의 유적으로부터 발굴된 것이다. 이것은 연마된 수정체의 볼록렌즈로 그 직경은 38cm, 초점거리는 114cm였다. 용도는 태양열을 모으기 위해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열을 모아, 양피지에 구멍을 뚫거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였다고 한다.¹⁾

『박물지』를 쓴 고대 로마의 전기작가 프리니우스(Plinius)에 의하면 네로황제(BC 54-68 재위)의 눈은 푸르고 시력은 약했다고 했으니, 네로는 근시였던 것 같다. 『박물지』 제36권 16장 말미에 '황제는 에머랄드를 통해 검투사의 싸움을 보는 습관이 있다'고 기록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네로는 근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에머랄드를 사용했다고 결론짓는 역사가도 있었다. 그러나 프리니우스가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녹색이라는 색과 에머랄드의 효용이었다. 그에 의하면 이 돌의 색 만큼 기분좋은 색은 없었고, 그 효과는 나뭇잎과 풀의 녹색이 가져오는 쾌감보다도 낫다고 했다. 이 학자는 시력이 약해졌을 때 에머랄드를 바라보면 눈이 편안해지고, 시력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보석세공 직인은 피로해진 눈을 쉬기 위하여 이 방법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부드러운 녹색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로가 외알안경을 썼다고 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에머랄드의 평면에 비쳐진 검투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대인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처럼 네로는 녹색 에머랄드를 통하여 투기장의 흰 모래에 반사되는 눈부신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²⁾ 또한 네로 황제는 서커스를 볼 때에도 에머랄드 렌즈를 통해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근시인 황제에게 녹색은 눈에 편안함을 주고, 에머랄드 원석의

특별한 커트는 시력을 보강시켜 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황제의 습관은 사람들에게 모방되었고, 네로의 안경은 안경의 역사 속에서 컬러렌즈를 낀 선글라스라는 형태로 계승되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 BC.5-AD.65)는 로마의 도서관에서 수구의(水球儀)를 통해 문자를 확대하여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옛날에도 시력을 보완하는 렌즈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1세기 아라비아인 과학자 알 하젠(al-Hazen, 996-1038)이 쓴 『시각론』이라는 저술에서는 이미 볼록렌즈가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266년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수도원에서 읽혀졌다고 한다.³⁾

1268년 영국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Roger Bacon)은 독서시 볼록렌즈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하므로, 13세기 초에 시력교정을 위한 렌즈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289년판 『가정경영론』이라는 원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져 안경이라고 부르는 렌즈없이 읽을 수도, 쓸 수도 없게 되고 말았다. 그 안경은 최근 발명된 것으로 시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은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경이 1268년에서 1289년 사이에 발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최초의 안경은 손잡이가 달린 프레임에 끼여진 한 알의 렌즈(monocle)였다.

상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안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치하는 것은 최초의 시력교정용 렌즈가 13세기 말에 출현했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최초의 렌즈는 노안용이었으므로 볼록렌즈였을 것이다. 그러나 렌즈의 발명자가 누구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13세기 말에 나타난 최초의 시력교정렌즈의 완성을 분명히 하는 자료로는 의학개론, 공증서, 성직자의 증언 등, 다양한 출전이 많이 있어 귀중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코에 걸치는 안경의 발명연대를 나타내는 최초의 자료의 하나로 산드로 디 포포조가 1292년에 쓴 기록이 있는데, 그는 '안경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수도사 지오르단 다 리바르토는

1305년에 행한 설교시, 안경에 관해서 '안경을 쓰면 잘 보이지만 이것을 만드는 기술이 발견된 것은 불과 20년 전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의학개론과 거의 동시기의 공증서에서도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 1305년 몽페리에대학 의학부 교수 베르나르 고르동은 그의 저서 중에서 '대단히 잘 듣는 안약이 있어, 이것을 쓰면 노인도 안경없이 작은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기록하여, 안경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306년 2월 23일, 파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수도사 후라 조르다노 데이 리바르토는 그의 설교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의 하나인 안경제조의 기술이 발명된 이래, 거의 20년이 지났다. 나 자신도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처음 착용한 사람과 이야기 한 적도 있다'고 했다.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하여 안경의 발명을 1280년경의 이탈리아나 서유럽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렌즈를 연마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으나, 베니스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 수정은 렌즈로서의 결점이 있었는데, 굴절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다. 그러나 무색투명한 녹주석 베릴(beryl)은 시력교정렌즈의 제작에는 안성맞춤으로, 커트는 쉬웠지만 가격은 수정보다 훨씬 고가였다. 안경에 사용되는 베릴은 무색의 베릴 외에 청색, 녹색, 장미색, 황색 등 다색의 베릴이 있었다. 이러한 베릴은 '고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베릴이 보석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녹주석 베릴의 명칭으로부터 프랑스어의 '베리클(béricle)', 혹은 '베지클(besicles)'로 불리우는 안경을 나타내는 용어가 생겨났다. 후에 녹주석 렌즈는 유리로 대체되었는데, 가장 고급 렌즈는 베니스산이었다.⁵⁾

최초의 렌즈는 볼록렌즈로 원시(遠視)용으로 정해진 것이었고, 탁한 색의 녹주석을 연마한 것이나, 석영편을 연마한 것이었다. 중세에 만들어진 최초의 베지클은 노안용이었는데, 아마 당시 가장 어렵게 생각된 노안교정을 우선시한 때문일 것이다.



<Figure 1> Portrait in eyeglasses - Fashions in Eyeglasses(1999), Yazakas hobou, p.23.
- Yazakashobou, p.23.

이러한 안경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에 관한 가장 확실한 자료는 안경을 그린 그림일텐데, <그림 1>의 좌는 우고네의 추기경 휴 오브 산 쉴의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1352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기경인 그가 안경을 쓴 것은 존경의 표시였다. 그러한 관행은 그 후 수 세기에 걸쳐 행해졌는데, 종교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림 1>의 우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성자들이 흔히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그것을 손에 들어 영예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초기의 안경은 손에 들던가, 조심스레 코에 얹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물건을 가깝게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였던 것이다.

III. 15세기의 안경

유리 제조는 프랑스에서는 14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보다 앞선 13세기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20년 이후가 되자, 지배계급들은 크리스탈과 녹주석의 렌즈를 낀 금테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다.

초기의 안경은 둥근 렌즈가 나무나 뿔(角)로 만들어진 원형의 테에 박혔는데, 각각의 원형의 연장에 봉(棒)이 뻗었다. 이 두 가닥의 봉이 못(clou)으로 일정한 각도로 고정되었다. 이러한 안경을 '쿠루앙(clouantes)'이라고도 했는데, 'clou'는 못이므로, 못

을 쳐서 연결한다는 의미의 쿠루앙으로도 불리었다.⁶⁾



<Figure 2> Clouantes, 15C-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32.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안경은 테가 나무, 철, 납, 동, 놋으로 만들어졌고, 마치 가위와 같은 이러한 초기 안경모습을 나타낸 도상은 많이 남아있다.

안경을 얼굴에 제대로 고정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는데, <그림 3>처럼 안경을 고정시키기 위해 훅(hook)을 모자에 고정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15세기 말이 되자 안경을 이마에 고정시켰는데, 일반적으로 굽혀진 연결다리를 사용하였다.⁷⁾



<Figure 3> Iron frames, 1570-Occhiali Italiani(1986), - Edizioni Anfao, p.18.

코 위에 얹을 수 있도록 렌즈와 렌즈 사이를 둥근 브리지(bridge)로 연결한 베지클은 15세기에 급속히 가위 형태의 크루앙을 대신하였다. 이것은 크게 유행했으나, <그림 4>처럼 브리지에 코가 막혀

소리가 비성이 되는 것과 코에 많은 땀이 나서 흘러 내리는 불편과 결점이 있었다.



<Figure 4> Saint Thomas More, 15C-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37.

초기의 렌즈는 노안을 교정하였으므로, 우선은 노인용이었다. 중세에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신학생과 수도승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나이가 있었다. 안경의 특권적인 사용자였던 이 사람들은 안경을 지식과 연결시킨 오브제로 만들었다. 실제 베지클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직자였다. 그들은 식자층이고 노인이 많아 베지클의 주 사용자였다. 안경은 이처럼 늘 서적과 접하고 있던 수도승들이 먼저 사용하였다. 한편, 귀족계급은 일반적으로 교양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고, 서적도 읽지 않았으나, 안경을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했다. 그 때문에 안경이 고가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프랑스에서 처음 안경을 만드는 직인과 안경을 파는 상인이 존재한 것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는 독립한 직종은 아니었고, 우선 처음은 잡화상과 타피스트리상의 동료로 참가했다. 1465년 8만 명의 상인과 직인의 열에 섞여 이 잡화상과 타피스트리상은 안경상과 함께 국왕 루이11세의 앞을 행진했다고 한다.⁹⁾

베지클과 더불어 안경의 또 다른 이름에 'lunectes', 이어서 'lunettes'가 있다. 'lune'는 달이므로 확실히 둥근 형태로부터 유래하였고, 그러한 둥근 형은 원이나 태양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달은 중세의 상징 체계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더 일반적인 것은 둥근 형은 시사에 넘친다는

점이다. 원형은 화폐가 그렇듯 부와 축재를 암시했다.⁹⁾ 이처럼 15세기의 안경렌즈는 <그림 5>처럼 원형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Figure 5> Designs of eyeglasses in 15C-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32.

안경은 시력을 교정하는 광학적 도구만이 아니고, 자연계의 유해한 요소(태양, 눈)와 다양한 일 속에서 만나는 리스크 또는 특정 스포츠에 따르는 리스크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준다. 눈을 보호한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관심사였다. 당시 이미, 견의 마스크와 베일이 태양광선과 바람,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였다.

초기의 안경 프레임은 놋, 철, 뿔(角), 뼈(骨), 금, 니켈, 은 등이 사용되었다. 15세기에는 가죽제도 나타났다. 1326년 당시, 영국 사교의 재산목록 중에는 금도금을 실시한 은테안경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안경에는 케이스가 필요했는데, 안경이 가치있는 재산이 되자, 그 케이스도 왕왕 예술작품이 되었다. 그러한 케이스는 보통 나무와 금속과 상아로 만들어졌고 우아한 장식이 행해졌다. 귀중한 안경은 사자, 일각수, 또는 기묘한 괴물 등의 그로테스크한 마스크가 그려진 케이스에 수납된 것이 많았다. 또, 시대가 내려오면서 기품있는 당초문양이나 성서의 한 장면, 혹은 종교적인 상징과 같은 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케이스가 나온다. 극히 보통의 케이스는 가죽이나, 뿔, 혹은 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다.

중세의 안경케이스는 목재가 많았고 보통 회양목으로 만들었다. 회양목은 단단한 나무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알려졌다. 안경케이스에는 대부분 투조문양이 조각되었고, 크리스트의 생애나 12인의 사도와 성인의 생애가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안경케이스는 소뿔과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뿔쇠와 철로 장식을 조각한 케이스도 있었다. 가장 사치스러운 것은 금과 은의 케이스였다. 금과 상아는 14~15세기의 재산목욕이 나타내는 것처럼 군주와 귀족의 안경에만 사용되었다.

안경케이스는 글씨를 잘 보이게 하는 기능상, 책의 표지에 붙여진 것이 많았다. 1403년의 기록에 의하면 브루그뉴 후작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도금을 한 은의 판금으로 만든 케이스를 책의 표지에 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때로 케이스를 벨트에 매달기도 하였다.

안경을 코 위에 올려놓지 않을 때에는 보통 벨트에 연결한 안경케이스에 넣어두었으나, 가는 끈을 달아 네크레스처럼 목 주위에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IV. 16세기의 안경

1500년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는 초점이 있는 렌즈의 기초를 마련하여 안경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케플러는 안구의 움직임에 의한 부수효과를 없애기 위해 렌즈를 만곡시켰다. 이 볼록하게 커브가 생긴 렌즈를 그는 '메니스쿠스(meniscus)'라고 불렀는데 보다 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⁰⁾

16세기가 되자 안경은 동전에 새겨질 정도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16세기는 안경의 역사상 가장 의미깊은 시대로, 이 세기 초에 근시(近視)용의 오목렌즈가 소개되었다. 교황 레오10세는 심한 근시였는데, 수렵시에는 오목렌즈의 안경을 착용했다고 한다. 이때까지 렌즈라고 하면 둥근 형태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1510년경의 계란형 렌즈는 근시용 렌즈인데, 먼 것을 확실히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

타난 형태였다. 먼 곳은 크고 둥근 렌즈로는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1525년에 안경제작자와 거울제작자가 단일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581년 앙리3세 시대에 거울상과 잠화상과 안경상은 공식적인 단체 규약이 부여됨과 동시에 그룹으로 정리되었다.¹¹⁾

한편, 1557년 이후 뉘른베르크에서는 그 토지에서 제작된 안경은 제작자의 점포에서만 파는 것이 허가되었고, 수입품인 베니스의 안경은 거리에서만 파는 것이 허가되었다. 그 당시 베니스의 렌즈는 대단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의 안경 프레임은 이탈리아의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력보호소론, 절식의 권장과 약품의 사용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영국 책은 1586년에 간행되었는데, 그중에는 색이 들어간 렌즈의 효용에 관하여 서술되었다. 1591년에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마기름을 배게 한 호박렌즈가 개발되었다.

16세기의 안경 제작자들은 렌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으나, 안경의 프레임인 테는 많은 종류는 아니었다. 주요한 소재인 골제의 안경 프레임은 1582년에는 프랑스에서, 또 1585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성인 필립 호리가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하는 3개의 안경이 현존하는데, 뿔테, 가죽테, 그리고 납테였다. 16세기 초의 독일에서는 렌즈를 부착하는 재료로서 골제 대신에 뿔이 사용되게 되었고, 가죽테도 흔히 사용되었다. <그림 6>은 17세기의 가죽제 프레임이다.



<Figure 6> Baleen glasses, 1678—Occhiali Italiani(1986), - Edizioni Anfao, p.19.

1519년에는 접을 수 있고, 시력을 보강하는 단알 렌즈(monocle)로서도 사용될 수도 있는 안경이 제작되었다. 1583년이 되자 뉘른베르크에서는 상당수의 뿔테 단알렌즈가 빈번히 팔려나갔다.

안경의 사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얼굴에 고정시키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의 방법으로 상시 착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면 머리에 매어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튼튼한 가죽 또는 가죽 끈이 달린 뿔테에 렌즈를 박아넣은 것은 머리에 고정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이 진전된 것은 세기말이 되어, 끈으로 귀에 거는 방법이었다. <그림 7>은 1580년의 초상화로, 끈을 동글게 하여 코안경을 귀에 걸었다.



<Figure 7> Portrait, 1580—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37.

V. 17세기의 안경

17세기는 안경 발전의 역사상, 프레임과 렌즈의 두 가지 면에서 직인의 정교한 기술이 발전되었다. 질이 높은 고급 안경이 제작됨과 더불어, 대량소비를 위한 염가의 안경도 제작되었다.

안경이 아직 고가였을 때에는 학자들이 안경을 썼으므로, 안경은 일종의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었다. 따라서 안경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염가의 안경이 급속히 보급되자, 부자와 사교계 사람들은 한층 고가의 안경재

료와 세련된 기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17세기의 현저한 진보라고 하면 갈릴레오가 발명했다고 하는 망원경의 발명이 가져온 진보를 들 수 있다. 1680년 영국에서는 망원경이 규칙적으로 생산되었다. 그 후 수 세기가 지나고, 이 망원경이 쌍안경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생겼다. 1617년경 영국에서는 '프로스펙트글라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18세기까지 계속된다. 후에는 '스파이글라스'라고도 불리었다. 프랑스인은 '로르그네트(lorgnette, 오페라글라스)'라고도 불렀다.¹²⁾ <그림 8>과 같은 소형 망원경은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된 셈인데, 그것은 또 놀이도구로서도 크게 환영받았다.



<Figure 8> Prospect glass, 17C
-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68.

안경의 판매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7세기가 되자 세느강변에 몇 개의 점포가 생겼다. 영국에서는 찰스1세 시대인 1629년에 안경제작자조합이 설립되었는데, 그 규약은 매우 엄격하였다. 런던대화재시에도 그 규약이 지켜졌다고 한다. 1669년의 기록에 의하면 비조합원이 만든 안경이 상점에서 판매되는 것이 보고되자 신속하게 조합원이 점주의 양해를 얻어 안경을 파기처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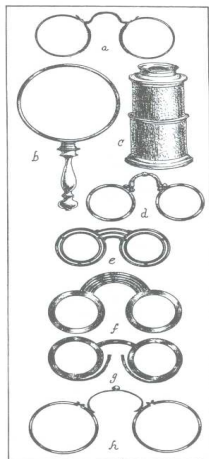
13세기로부터 18세기까지의 안경판매 행상인의 모습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림 9>와 같은 판화를 보면 그들은 소매없는 망토를 입고 모자를 쓴 검

소한 여행자로서 그려져있다. 그들의 몸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장방형의 판매대가 있고, 이것을 끈으로 고정시켜 목에 걸었다. 행상인은 방랑자에 가까와 마을에서 마을로 끊임없이 여행하였다.¹³⁾



<Figure 9> The eyeglass pedler, 1670—Occhiali Italiani(1986), - Edizioni Anfao, p.43.

17세기 초기에는 <그림 10> 처럼 원형렌즈에 경량의 스틸 프레임의 '올드글라스'라고 할 안경이 사용되었다. 또한, 17세기의 문헌에는 극히 사이즈가 큰 안경 렌즈의 언급이 보여진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렌즈의 크기는 부의 정도와



<Figure 10> Designs of eyeglasses in 17C—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70.

비례하는 셈이다. 환언하면 안경의 사이즈는 안경을 쓴 사람의 위광과 권력에 비례하는 것이었다.

안경을 보관하는 안경케이스도 목재나 금속을 사용한 장식적인 디자인이 제작되었다.

눈을 보호하는 안경은 17세기가 되자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들은 주로 착색유리로 만들어졌다. 색 중에서 대세를 점했다고 생각되는 녹색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기호와 더불어 혐오가 커서 논쟁을 일으켰다. 녹색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청색으로 일반적으로 밝은 청색이었다.

VI. 18세기의 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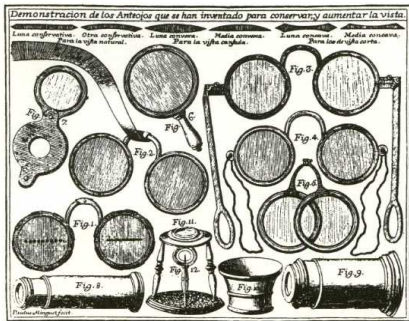
안경의 발전사상 18세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경을 안정시키는 실용적인 수단의 진보였다. 베지클은 발명 당시, 대단히 밸런스가 나쁜 것이었다. 나사로 고정된 연결눈은 곧 마모되어, 제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이었다. 이후, 렌즈와 렌즈를 연결하는 보다 유연성이 있는 동근 브리지로 결합시키자, 이전의 코 위에 얹는 형태에서 코를 잡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장치가 고안된 덕에 양 손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브리지가 닿는 곳에 땀을 많이 흘리므로, 베지클이 흘러내려, 코는 호흡하기 어려워지고 말할 때의 목소리는 비성이 되고 말았다. 좀 더 잘 고정하는 방법이 궁리되었는데, 당연히 귀는 제일 먼저 고정점이 되었다. 두 개의 렌즈 테의 위에 작은 원을 만들고, 거기에 끈을 통하여 귀 주위에 건다. 가는 끈과 견, 리본, 가죽 끈, 철사 등을 사용하여 제멋대로인 베지클의 테를 연결하는 것이다. 고정침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선단에 작은 추를 달아 끈을 렌즈를 둘러싼 테에 연결하여 그것을 귀 위로부터 늘어뜨려, 추의 무게로 베지클을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머리도 베지클의 끈을 목 위에서 묶음으로 베지클의 고정구로서 사용하였다. 그 외에 렌즈를 모자에 붙이기도 하였다.

18세기 전반에 비로서 안경다리(템플)의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그러나 당시 그것은 다리 한 가닥을

이마에 걸치는 것이었다. 베지클의 둥근 브리지의 중앙에 15센티 정도의 다리를 붙여, 이마에서 굽어지고 머리털이나 모자로 가리도록 한 것이었다. 이 기묘한 오브제는 불편하였고, 특히 세련된 사람들에게는 볼품없는 것이었다. 이 결점이 두 가닥의 다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가닥의 다리 모두 얼굴의 양측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안경이 발명된지 350년이나 지나, 겨우 안경을 얼굴에 견고히 고정시키는 적당한 수단이 발견된 것이다. 이 소위 다리(현재의 템플)가 고정된 안경은 1727년부터 1730년 사이에 서구에서 발명된 것으로, 런던의 안경상 에드워드 스칼렛(Edward Scarlett)이라는 인물에 의해 완성되어 크게 개량된 것으로 생각된다. 스칼렛의 발명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전해졌다. <그림 11>은 1763년의 포스터인데, 당시 사용된 다른 안경과 함께 이 다리 달린 안경이 나타난다.¹⁴⁾



<Figure 11> Designs of eyeglasses, 1763-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91.

한편, 18세기에는 <그림 12>와 같은 손잡이 달린 단알렌즈의 안경(片眼鏡)이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18세기에 크게 유행했다. 이 안경은 영국 용어로는 퀴징글라스(quizzing glass), 혹은 퀴저로 불리었다.¹⁵⁾

안경을 보관하는 안경케이스도 <그림 13>과 같이 목재나 금속을 사용한 장식적인 디자인이 제작되었다.



<Figure 12> Quizzing glasses(left) and scissor glasses(right)-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106.



<Figure 13> Chased gilded bronze case, 18C-Occhiali Italiani(1986), - Edizioni Anfa, p.36.

18세기 후반이 되자 별난 형의 안경이 유행하게 되었으니, 손잡이가 달린 양알렌즈의 안경이다. 조지 워싱턴이 사용한 것은 1600년에 그려진 것인데, 필시 이것에 힌트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의 총재정부시대(1795~99)에는 이 안경이 소위 '앙크로와야블'이라는 당시의 이상한 멋쟁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것을 '가위형안경(scissor glass)', 혹은 '가위안경(鋏眼鏡)'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안경에는 대단히 엘레강스한 것이 많아, 진주를 박아 넣은 스틸제도 있었다. 보통은 프레임의 끝에 고리가 달려 견의 리본 또는 금, 은의 사슬로 목에 걸게 되었다.

18세기는 귀족들이 착장한 화려하고 공들인 광학 기기와 오브제가 많이 나타나 유행하였다. 1720년

경, 동업조합의 멤버 중 특히 안경과 광학기계를 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옵티시안'이라는 이름을 채용했는데, 거울상의 조합에 속한채 독립된 조합규약을 갖지는 않았다.¹⁶⁾

18세기에는 영국인이 '프로스펙트글라스'로 부르고, 프랑스인이 '로르그네트(lorgnette)'로 부른 소형 망원경이 베니스와 프랑스의 궁정 사교계의 남녀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¹⁷⁾

유행한 로르그네트는 예술가와 직인의 손에 의해 금, 은, 나무, 상아, 도기, 웨지우드 도자기, 가죽, 에나멜, 보석 등의 장식이 되어, 실용적 가치와 동시에 예술작품으로서도 귀중히 여겨졌다. 루이16세 시대에는 이 프로스펙트글라스가 우아한 장식을 한 상자에 넣어졌는데, 당시의 공예품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1749년의 저술에는 극장에서 이 프로스펙트글라스가 남용되는 것을 한탄하기도 했다. 이 프로스펙트글라스는 19세기에도 인기가 지속되었다.

현대를 제외하면 가장 크리에이티브하고 분방한 디자인의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 18세기 말이었다. 시각에 관한 오브제 분야에서 처음 '패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 18세기에는 특히 베니스와 프랑스 궁정을 중심으로 안경에 패션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안경은 패션으로서가 아니라 실용 일면뿐이었다. 그때까지 장식적인 스타일리쉬한 안경은 비하되었으나, 비난하던 쪽이 도리어 팬시한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프레임은 오브제로서 대단히 버라이어티를 갖게 되었고, 또 사용된 재질(금,

은, 상아, 진주, 호박, 보석)에 의해 부유함을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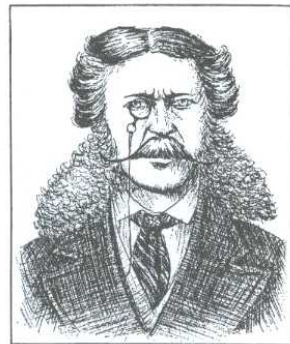
안경 프레임의 재료 중, 뿔(角)은 높게 평가된 소재였다. 그것은 뿔이 생(生) 소재였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였다. 종래 사용되던 금, 은, 뿔, 철, 낫쇠에 더하여 이 시대에 등장한 것은 <그림 14>와 같은 별갑(鱗甲)으로 이것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나 당시는 다양한 형태의 안경에 사용되었다.

Ⅶ. 19세기의 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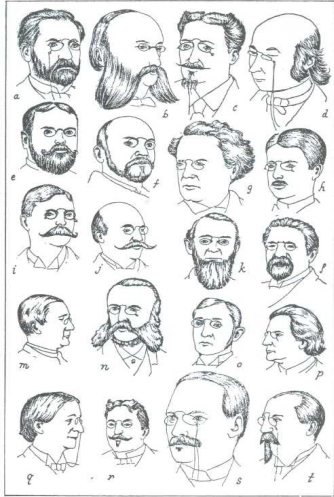
단안경이 세상에 소개된 것은 1806년경이다. 단안경은 폰 로교수가 퀴징글라스를 변화시킨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영국에서 생겨난 것인데, 19세기 초부터 나타났다. 피트 하버드는 『단안경을 쓴 눈』이라는 저서 중에서, 그것은 무대에서 처음 사용된 것인데 이윽고 일반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점차 영국 귀족계급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단안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원시 교정용으로, 하나는 독서용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의 단안경은 견고한 금속제가 많았고, 때로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진 것도 있었다. 이 단안경이 1820년경에는 대량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다양한 형(원형, 난형, 팔각형, 사각형, 장방형)과 재료(금, 은, 금도금, 각, 패각 등의 프레임)가 사용되었다.¹⁸⁾



<Figure 14> Tortoiseshell frame, 1770–Occhiali Italiani(1986), - Edizioni Anfao, p.37.



<Figure 15> Monocle, 1881–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143.



<Figure 16> Various pince-nez, 1870-1900(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176.

세기말이 되자 단안경은 손잡이로 지탱되지 않고도 걸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형은 <그림 15>와 같이 거의 원형이 되었고, 끈이나 리본에 매여져 목에 걸게 되었다.

19세기가 되자 장식을 한 고가의 안경 유행은 끝나고, 적어도 남성들은 실용적인 안경을 쓰게 되었다. 사교계의 여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안경을 쓴 모습은 아직 없었지만, '로르그네트'를 사용하는 남성의 모습도 또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타협안으로서 코안경이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게 되었다.

코안경(pince-nez)은 1840년대에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단안경과 달리 <그림 16>과 같은 코안경은 널리 서구 전역에서 유행하였다. 사교계의 여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안경을 쓴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코안경은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었다. 신사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여러 형태의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다.¹⁹⁾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는 『금테 코안경』이란 작품에서도 당시 코안경의 유행을 엿볼 수 있다.

1819년의 『여성과 유행』 신문을 보면 당시 젊은

여성들에게 애호되었던 코안경(lorgnon)은 정교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리에서 유행하던 안경점에서 팔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 초에는 아직 프랑스제의 로르그네트 내지 소형의 스파이안경이 변함없이 유행했다. 나폴레옹 황제를 그린 그림에 흔히 망원경이나 로르그네트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은데, 황비 조세핀은 특히 이 안경을 사랑했다고 한다. 제1제정시대의 프랑스에서는 아직 서양배 형태의 스파이안경이 여전히 사용되었는데, 장식은 전 세기에 비해 엘레강트하지 않았지만, 색채는 선명해졌다. 단순히 N이라는 두문자가 디자인의 중심에 사용되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변함없이 인기가 있었던 로르그네트가 달린 부채는 소형화되었다.²⁰⁾

1820년경이 되자 프랑스풍의 부채형 스파이안경은 후에 대유행을 부른 소형 만화경에 의해 대체된다. 단안경(모노클)과 소형 스파이안경은 산호, 스틸, 금의 체인이 달려있었다.

1823년 봄의 『여성과 유행』 지에서는 스파이안경 내지 단안경인 오페라글라스의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윽고 이러한 단안경인 오페라글라스를 두 개 붙이는 쌍안경이 고안되어, 1823년경 파리에서 완성되었다. 세기말이 되자 파리지의 오페라글라스는 고도의 발달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장치를 더할 필요가 생겼다. 그 하나는 손잡이로 사교계의 여성들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한 손잡이에도 렌즈에도 진주나 금으로 장식된 것이 많았다. 그후에도 이 손잡이에 여러가지 개량이 더해진다. 1895년의 『광학신문』의 광고에는 착탈이 가능한 손잡이가 달려, 손잡이를 돌림으로 초점을 맞추는 오페라글라스가 나와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좌우의 통 사이의 회전축을 돌리는 것보다 편리했다.

19세기가 되자 안경다리(템플)가 대단히 가늘어졌다. 재료는 주로 철, 강철, 니켈, 은, 금이었다. 이러한 안경다리는 귀를 따라 커브되고, 그 귀의 중간 정도에서 멈추어 귀에 달라붙은 듯 한 느낌을 주었다. 이때의 안경다리는 금일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그 최종적인 길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1885년에는 호박과 운모 대신에 유리를 사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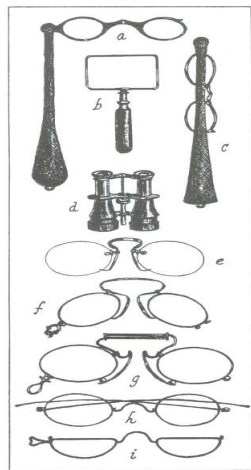
선글라스가 처음 개발되었다. 녹색과 청색의 렌즈는 18세기와 19세기 전반에는 대단히 많이 사용되어졌으나, 그 이후가 되자 현대까지 발달해온 선글라스가 나타나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손에 쥐고 눈에 대는 외알안경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출현했다. 이 시대의 외알안경은 작은 거울과 같은 외관을 갖고, 둥근 것도 있고, 각을 둥글게 한 정방형이나 장방형도 있고, 삼각형조차 있었다.

현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프레임의 형이 있으나, <그림 17>처럼 19세기 초기까지는 둥근 형이 주였다. 그리고 이 둥근 형은 13세기 안경이 발명된 때부터 계속 변하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프레임의 버라이어티 풍부한 형은 기묘한 현상처럼 생각된다.

타원형, 장방형, 정방형, 팔각형과 같은 새로운 렌즈의 형은 19세기 초에 겨우 나타나는데, 그 형은 안경을 둘러싼 부속적인 오브제의 형까지 파급되었다.

19세기가 되자 소위 공업이 시작되고 대량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형의 획일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사치스런 모델이 적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경의 프레임에도 스틸, 니켈, 주석과 같은 금속이 등장한다.²¹⁾



<Figure 17> Designs of eyeglasses, 19C-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214.

VIII. 20세기 전기의 안경

20세기의 안경은 과거 6세기에 걸친 진보의 역사를 훨씬 넘는 발전을 나타냈다. 안경이라고 하는 시력 보완의 수단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이래, 널리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디자이너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실용성에 장식성을 더하려는 디자이너들의 노력은 안경 프레임에 어울리는 플라스틱의 개발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았다.

1908년에 리처드 존즈 필립 박사는 안경 프레임과 당시 사용되고 있던 재질에 관하여 서술하는 중에, 가장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금, 은, 스틸, 금도금, 놋, 니켈, 주석의 합금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10-14캐럿의 금제를 추천하였는데, 놋은 지나치게 부드럽워 휘기 쉽다고 했다. 더불어 필립박사는 독서와 세밀한 일을 하는 데에는 반란형(半卵形)의 안경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시선을 들면 직선의 테를 넘어 먼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안경은 반안경, 설교안경, 목사안경 등으로 불리며,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1913년에 단안경은 뉴욕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그 외 아메리카합중국의 대도시에서도 점차 유행하게 되었다. 안경 프레임의 재질은 금, 은, 금도금, 셀룰로이드, 경화고무 등이었다.

'옥스포드안경(길이가 길고 시계가 넓은 접는 식 안경)'이 뉴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10년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남자들만 사용했던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녀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거대한 원형안경도 코안경도 변함 없이 사용되었고, 그 스타일면에서의 개발도 계속되었다. 1921년경의 안경 디자이너들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미적 매력을 자아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어도, 최고의 것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였다.

조지 그루박사는 『리테러리 다이제스트』지에 온갖 안경에 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 그가 비난하는 안경은 다리없는 안경, 즉 코안경이었다. 안경에 귀 뒤로 걸치는 다리가 없으면 렌즈의 광학적 중심점이 눈에 정확히 맞도록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프랑크 마피박사는 『리테러리 다이제스트』지에서, 흰 얼굴에는 금이나 와인컬러의 안경테가 좋고,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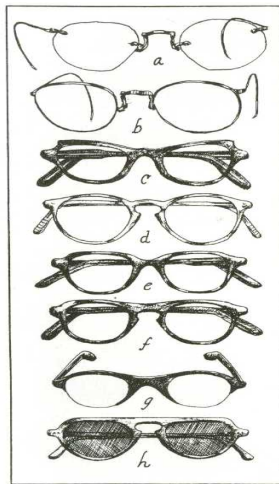
얼굴에는 다크 컬러의 테가 좋고, 얼굴이 작은 사람에게는 연한 색의 테가 어울리고, 키가 큰 사람에게는 낮게 세트된 것,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높게 세트된 것이 좋다고 하였다.²²⁾

1947년의 『비즈니스 위크』지는 선글라스의 유행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다크 컬러의 안경은 맹인의 표시였다. 그런데 헐리우드가 그것을 유행시켰는데, 금일에는 노인이나 젊은이에게도 다크 컬러의 선글라스는 갈망하는 하나의 스타일이 되었다.'²³⁾

20세기 초, 안경 역사에 새로운 단계를 예상시킬 세부적인 요소가 나타났다. 즉 프레임의 상부가 눈썹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얼굴의 윤곽, 눈의 형, 광대뼈의 높이, 피부와 눈의 색과 일치한 '얼굴에 어울리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변화가 안경 개성화의 제일보가 된 것이다. 이후, 사람을 프레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을 사람의 얼굴 형과 특징에 맞춰 여러가지 형태로 바꾸어갔다.

안경 프레임의 디자이너가 유행 경향에 주목하고, 안경 디자인을 당시의 유행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것은 194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패션산업에서의 유행을 안경 디자인에 반영하면서부터 안경 프레임에도 일시적인 유행이 나타났다.



<Figure 18> Designs of eyeglasses, the former 20C-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295.

20세기가 되자 합성수지와 플라스틱이 탄생한다. 당시 출현한 것에는 아세칠 셀룰로스, 티탄, 다양하게 처리된 메탈, 알루미늄이 있다. 흑지와 별갑 위에 인조보석을 붙인 것도 있고, 크리스탈 소재도 있는데 극히 다양한 제조방법을 나타낸다.

한편, <그림 18>처럼 20세기 전기의 안경은 외측을 향해 뻗어나가는 형태가 되었으나, 프레임은 다시 두꺼워졌다. 이즈음 가장 인기가 있던 것은 소위 '헤어퀸(harequeen)형'이라는 것으로, 윗 부분과 가장자리가 조금 높고, 긴 렌즈가 달린 안경이다. 1940년대 디자인의 대부분은 이 헤어퀸형에 여러가지 변화를 준 것이었다.²⁴⁾

IX. 20세기 후기 이후의 안경

안경은 스타일리쉬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은 1951년에 열린 '안경 패션 쇼'로부터였다. 1953년 발행의 『인디펜던트 우먼』지에서는 '선택시에 조금만 주의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얼굴형과 피부색에 어울리는 안경을 찾을 수가 있고, 안경이 자신의 아름다운 룩스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54년 1월 발행의 『마드모아젤』지에서는 안경을 신중히 선택함으로 자신의 표정, 개성, 얼굴색과 같은 일반적 인 매력을 바꿀 수가 있고, 안경 프레임이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은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져 이전 것에 비하여 훨씬 스마트해졌다고 기술하였다.

1954년 7월 발행의 『우먼즈 홀 컴패니온』지에는 세라니즈(인조견의 일종), 플라스틱의 안경 프레임과 모녀가 공용으로 사용할 만한 안경 프레임, 체크무늬 풍의 선글라스 등이 게재되었다.

1958년 5월호 『보그』지에는 대형의 모조 귀갑(龜甲)의 안경 프레임을 쓴 모델이 나타났다. 『보그』지는 안경이라는 것도 다루기에 익숙한 다이아몬드 장식핀과 마찬가지로 극히 간단히 다루면 된다고 충고하였다.

남성도 여성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홀리데이』지에 의하

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오피스에서의 8년간 단 한번 안경을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는 컬럼비아대학에 있을 때, 금테의 '학장형'안경을 착용하였으나, 퇴임 시에는 플라스틱제의 '다이나믹형' 안경을 착용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중 안경을 두 번 바꾸었다. 처음에는 '미즈리·고딕형'이었고, 최초 임기의 중간에는 테없는 8각형의 '재벌형'으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변형된 '클럽맨형'이었다.²⁵⁾

1960년 5월호 『매콜』지는 은색의 깃털처럼 가벼운 알루미늄제의 안경 프레임을 소개하였다. 또 다른 잡지의 기사도 그렇지만, 안경이라는 것은 시력상의 결함도 보완하면서 얼굴에 맞추어 선택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얼굴의 결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둥근 얼굴에 각을 주거나, 긴 코를 짧게 보이게 하거나, 짧은 코를 길게 보이게 하거나, 사각의 얼굴을 부드럽게 하거나, 너무 넓은 이마를 좁아 보이게 하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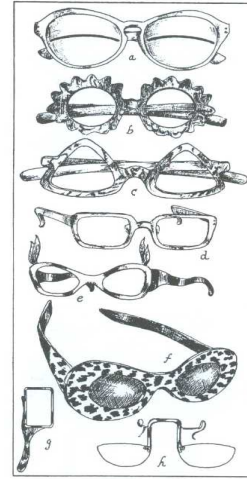
1962년의 『레드 북』지에는 여성들의 아이셰도우와 립스틱의 색과 조화되도록 만들어진 선글라스의 다양한 프레임과 렌즈를 게재하였다.²⁶⁾

1966년이 되자 소위 할머니(granny)안경이라고 할, 색이 들어간 렌즈가 끼워진 것이 시장에 범람하였다.

안경을 단순히 수용적인 것이 아니고 패셔너블한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1964년 11월에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유행안경 그룹'을 결성하면서 새로운 탄력이 붙었다. 이 조직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메리카에서 디자인된 안경 프레임을 패션 액세서리처럼 만들려는 것이었다. 1965년의 『보그』지는 이 그룹이 제조한 신형 안경 프레임의 특징기사를 게재하였다.

『보그』지의 편집자는 보수적인 여성을 위하여 반안경을 권하였고, 또한 안경을 얼굴에 바르게 피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안경을 지녀야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였다.²⁷⁾

<그림 19>를 보면 1966년 봄까지 안경은 유행의 극한에 이른 것 처럼 보인다. 대형의 정방형, 장방형, 팔각형 및 난형, 줄무늬 들어간 것, 무지 등이 나타났다.



<Figure 19> Designs of eyeglasses, the latter 20C-Fashions in Eyeglasses(1999), - Yazakashobou, p.307.

실제 60년대, 70년대에는 지금 보면'얼굴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 정도로 큰 안경이었다. 쿠레주와 카르맹이 디자인 한 것도 목직한 느낌의 프레임이었다. 바로 그 당시는 프랑스에 나비형, 고양이형의 프레임이 아메리카로부터 상륙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림 20>처럼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안경 프레임의 프로토타입은 웰링턴, 에비에이터, 옥타곤, 옥스포드, 퀸, 서클러 등을 들 수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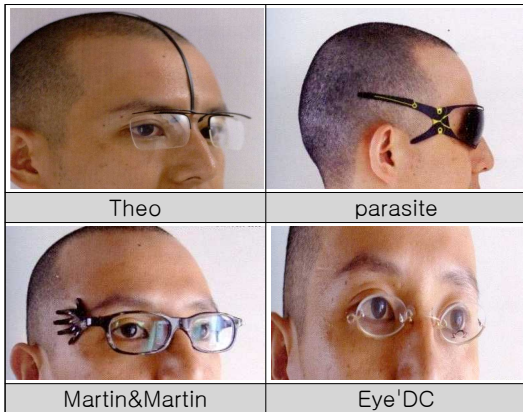
Wellington	aviator	octagon
Oxford	queen	circular

<Figure 20> Modern eyeglasses frame-Men's Fashion Glossary(1994), - Huzingahosha, p.272.

21세기에 들어오자 안경 프레임은 신소재로 제작되어 한층 경량화되고, 디자인은 다양화되었다. 현재 행해지는 연구는 안경다리를 귀에 걸었을 때의 쾌적함 보다는 재료의 경량화, 다양화, 아름다운 형태의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안경점의 진열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의 일반인들에게도 안경은 패션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 잡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안경을 소유하고 복장과 조화시키는 안경 코디네이트를 실현하고 있다.²⁹⁾

안경이 특히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선글라스에서 현저하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컬렉션에서 복식과 어울리는 안경디자인을 제시하여 트렌드를 형성해가고 있다. 또한, 해마다 S/S 나 F/W 시즌에 샤넬, 구찌, 페라가모 등의 브랜드에서는 복식과 함께 선글라스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패션쇼를 보아도 마르탱 마르젤라는 컬렉션의 전 모델에게 선글라스를 쓰게하여, 선글라스 자체가 패션을 이루는 아이템이 되는 등, 현대 패션에서 안경은 패션 아이템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았다.³⁰⁾

<그림 21>처럼 최근의 아방가르드한 안경디자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안경의 고정방법인 템플을 귀에 거는 방식을 탈피하여 머리, 관자놀이, 코에 고정시키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³¹⁾ 이것은 18세기 이전의 안경의 고정방법을 탐색하던 시기의 고정점과 닮아 레트로로 감각조차 느끼게 한다.



<Figure 21> Modern avangarde eyeglasses frame
-Meganeokaini(2011),
- Sekaibunkasha, pp.172-173.

X. 결론

본 연구는 시력을 보완하는 의료기기이자 현대 패션의 주요한 아이템이지만, 연구가 진전되지 못했던 안경을 주제로 그 발전과 디자인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개괄한 것에 의의가 있다. 즉,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안경의 시대별 발전과 디자인의 변천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1. 세계 최고의 렌즈는 고대 니스웨의 유적으로부터 발굴되었다. 고대의 녹주석렌즈로부터 베지클이라는 안경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타났다.
2. 고대 로마시대에도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에머랄드와 시력을 보완하는 수구의가 사용되었다.
3. 시력보강과 보호를 위한 안경은 13세기 말의 이탈리아나 서유럽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4. 14세기에는 안경을 쓴 최초의 추기경의 초상화가 남아있다.
5. 15세기에는 붕으로 고정된 크루앙이라는 안경이 나타났다.
6. 16세기 초에는 근시용의 오목렌즈가 개발되었고, 외알렌즈가 대량으로 판매되었다. 그리고 1525년에는 프랑스에서 안경제작자 조합이 결성되었다.
7. 17세기에는 안경의 프레임과 렌즈가 정교하게 되고, 소형 망원경인 프로스펙트글라스가 고안되었다.
8. 18세기에는 안경을 코 위에 얹기 위한 수단과 장치가 많이 탄생하여, 둥근 브리지로 연결된 렌즈를 코 위에 얹었다. 런던의 안경상 에드워드 스칼렛에 의해 귀 뒤로 고정시키는 템플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의 영국에서는 퀴징글라스가 유행하였고, 베네치아와 프랑스 공정을 중심으로 안경에 패션성이 나타났다.
9. 19세기에는 단안경과 코안경이 유행하였고, 남성 중심으로 실용적인 안경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템플이 가늘어졌고, 현대와 같은 길이가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렌즈가 나타났고, 안경 프레임에 금속 사용이 나타났다.
10. 20세기에는 안경의 활용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행이 나타났고, 렌즈형과 프레임도 한층 다양화되

었다. 1910년에는 옥스퍼드 안경이 개발되었고, 1920년대에는 금도금안경이 유행하였다. 1940년대 이후에는 패션산업의 유행이 안경유행에도 반영되었다.

11. 20세기 후기인 1950년대에는 안경패션쇼가 개최되었고, 1964년에는 아메리카유행안경그룹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안경이 주요 패션의 아이템이 된 20세기 후기의 디자이너들은 극히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렌즈와 프레임을 만들게 되었다. 이 분야의 크리에이션이 일거에 폭발적으로 신장한 결과, 안경점도 신장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안경점들은 쇼케이스의 전시 방법을 경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경을

둘러싼 창의와 공리는 새로운 세대의 대담한 크리에이터들의 활약무대가 되었다. 크리에이터들의 상상력은 과거와 현재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한 형과 재질을 조합하여 계속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안경을 발표하고 있다.

12. 안경의 디자인 변천에서 중요한 것은 안경의 재질과 안경을 코에 얹기 위한 수단과 장치의 변천이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안경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발전과정과 21세기의 다이나믹한 안경 디자인의 변천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Table 1> Frame materials and types of eyeglasses

Age	Name of Eyeglasses	Material of Frame	Type of Eyeglasses
15C	clouantes	wood, steel, lead, copper, brass, horn, bone, gold, silver, nickel, leather	scissors type, bridge type
16C	clouantes, monocle	horn, bone, lead, leather	hat type, bridge type
17C	prospect glass (lorgnette), spy glass, old glass	gold, silver, horn, leather, brass	bridge type, cylinder type
18C	quizzing glass, scissor glass, lorgnette	gold, silver, horn, steel, brass, leather, tortoiseshell	scissors type, bridge type, temple type
19C	monocle, pince-nez, lorgnon, lorgnette	gold, silver, horn, shell, steel, nickel, tortoiseshell	operaglass type, spyglass type, temple type
20C	monocle, Oxford glass, sunglass,	gold, silver, white gold, brass, nickel, tin, titanium, horn, metal, plastic, cellulose, aluminium, rubber	clubman type, harequeen type, granny type, Wellington, aviator, octagon, Oxford, queen, circular

Reference

- 1) C. Richard(1999), *Fashions in Eyeglasses*, trans. Umeda Haruo, Tokyo: Yazakashobou, p.12.
- 2) Astrid Vitols(1997), *Dictionnaire des lunettes*, trans. Nozaki Saburo, Tokyo: Harushobou, p.192.
- 3) A. Francesco(1986), *Occhiali Italiani*, Milan: Edizioni Anfao, p.18.
- 4) C. Richard(1999), op.cit., p.18.
- 5) A. Francesco(1986), op.cit., p.20.
- 6) Astrid Vitols(1997), op.cit., p.64.
- 7) A. Francesco(1986), op.cit., p.18.
- 8) C. Richard(1999), op.cit., p.26.
- 9) Astrid Vitols(1997), op.cit., p.110.
- 10) A. Francesco(1986), op.cit., p.22.
- 11) C. Richard(1999), op.cit., p.40.
- 12) Ibid., p.66.
- 13) Astrid Vitols(1997), op.cit., p.27.
- 14) C. Richard(1999), op.cit., p.90.
- 15) Ibid., p.105.
- 16) Astrid Vitols(1997), op.cit., p.158.
- 17) A. Francesco(1986), op.cit., p.22.
- 18) C. Richard(1999), op.cit., p.137.
- 19) Ibid., p.177.
- 20) Ibid., p.129.
- 21) Astrid Vitols(1997), op.cit., p.167.
- 22) C. Richard(1999), op.cit., p.241.
- 23) Ibid., p.260.
- 24) Astrid Vitols(1997), op.cit., p.168.
- 25) C. Richard(1999), op.cit., p.269.
- 26) Ibid., p.273.
- 27) Ibid., p.281.
- 28) Huzingahosha(1994), *Men's Fashion Glossary*, Tokyo: Huzingahosha, pp.272-273.
- 29) Sekaibunkasha(2012), *Megane Begin, 12*, Tokyo:Sekaibunkasha, pp.100-105.
- 30) Mode et Mode Sha(2011), *Mode et Mode*(No. 354), Tokyo: Mode et Mode Sha, p.118.
- 31) Y. Huzi(2011). *Meganeokaini*, Tokyo:WAVE Shutpan, pp.172-173.

접수일(2013년 5월 15일)

수정일(2013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2013년 7월 29일)